

# 생의 마지막 잔을 마주하고 쓴 '젊은 날의 초상'

### '대필작가' 펴낸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소설가 김신은

#### “암수술 후 세상 보는 눈 달라져 천차만별 다양한 사람들의 삶 작품 속에 펼쳐나가겠다”

“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전과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뭐랄까,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이 맞을 것 같네요. 세상이 너무 다양하다는 것, 내가 추구하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순 출신 소설가 김신은(73). 김 작가는 수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동강대에서 퇴임하고 얼마 후 몸에 이상이 느껴졌다. 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김작가 또한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이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는 다시 소설을 떠올렸다.

사람들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큰 수술을 받고 나면, 흔히들 인생을 두 번 산다는 말을 한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지나온 삶을 성찰하게 되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숙고하게 되는 건 인지상정이다.

예술가는, 특히 글쓰기를 업으로 삼는 작가에게는 작품 세계가 변곡점을 맞는다. 작가는 인물을 창조하고, 그 인물이 엮어내는 세상을 하나의 작품으로 형성화하는 존재다. 인간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작품 세계 또한 당연히 변하게 된다.

김 작가가 이번엔 펴낸 네 번째 장편 '대필작가'(등대지기는)는 그의 현재의 관점을 오롯이 담아낸 작품이다. 작품은 지난해 문학계간지에 연재된 것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으로, 김 작가 소설 특유의 유려한 문장과 지적인 분위기를 특징으로 한다.

그는 “대필작가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글로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택한 직업”이면서 “그럼에도 그에게는 세상을 보는 특유의 시선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소설 주인공 화자는 어린 시절부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매혹된 인물



이다. 책에 묘사된 쿠빌라이 황제의 웅장하고 찬란한 삶을 동경하면서 자란다. 그러나 기억 한편에는 도시 번두리 판잣집에서 살았던 상실과 궁핍의 기억이 자리한다. 더욱이 화자의 아버지는 해방 공간의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 희생된 인물이다. 영문도 모르는 채 부모를 잃게 되고 아홉 살에 겪은 비참한 체험에 닳은 뼈앗고 아내 무당이 되고 만다.

이렇듯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주인공에게는 '동방견문록'이라는 상상속의 찬란한 삶과 누추하고 비루한 현실의 삶이 드리워져 있다. 그는 대학 설립자로 성공한 이사장에게 고용돼 그의 삶의 궤적을 추적한다. 그러나 갑작스런 이사장의 죽음으로 '대필작가'의 일이 끝나고 만다.

“이 소설은 어쩌면 나의 젊은 날의 초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생의 마지막 잔을 마주하고 있는데도 그것들이 여전히 난해한 의문부호로 내 안에 살아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뉴 밀레니엄'의 시작처럼, 장차 무엇이 될 것인지 알 수 없고 무엇을 하려는지조차 모르는 불확실성의 지속은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지금도 여전히 내 어깨를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김 작가는 이 소설을 쓰게 된 또 다른 계기로 세기말과 뉴밀레니엄의 불안정성을 든다.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는 뉴밀레니엄의 경계에서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고, 여전히 불안하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얽힌 상태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아마도 김 작가가 응시하는 세상은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리면 그 자체로 다시 골짜기로 굴러 떨어지는 시지프스의 바위와도 같은 것”인지 모른다. 김 작가는 지난 1972년 광주일보(옛 전남일보) 장편소설 공모에 '백령도'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



장편 '대필작가'를 펴낸 김신은 작가는 “암수술 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며 “앞으로의 남은 생도 다양한 인간들의 삶을 그린 작품을 쓰고 싶다”고 밝혔다. <김신은 제공>

왔다. 당시 '백령도'는 1년간 신문에 연재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이후 75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이무기'가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창작의 길로 들어선다.

초창기 김 작가의 작품은 소년기 화자로 등장하는 성장소설 형식이 많았다. 장편 '땀방울에서 며칠을', 장작집 '황혼의 마을'에 수록된 작품은 인물의 통과외례를 모티브로 변화해가는 주인공들의 삶을 다루었다.

“젊은 시절에는 독일 작가 토마스 만이나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좋아했어요. 당시의 분위기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인물이 성장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형성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고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이후에는

모든 세상사가 다르다는 관점이 생겼다. “세상이 너무 다양하고 역동적입니다. 천차만별의 삶을 아우르는 소설을 쓰고 싶어요. 젊은 시절 성장 소설의 주인공으로 차용한 소년들을 이제는 성장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생도 다양한 인간들이 어떻게 삶을 모색하고 펼쳐나가는지를 그려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김 작가는 광주 서석고와 동강대에서 30년 넘게 교직생활을 했다. 지금까지 '창동조서', '울지연대기' 등 네 권의 장편, '낯선 귀향', '부처님 얼굴' 등 세 권의 창작집을 펴냈다. 광주문학상과 화순문학상, 한국소설작가상을 수상했으며 1970년대 문순태·이명환·한승원 작가 등과 '소설문학' 동인으로 활동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지난해 1월 여수 광마산 자락에 자리한 GS 칼텍스 예술마루. 사진 기자와 함께 대극장 안으로 들어서자 귀에 익숙한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가 울려 퍼졌다. 때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공연장은 유스(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빛어내는 아름다운 화음으로 혼쫓았다.

이날 무대는 예술마루가 겨울방학을 맞아 연세대 음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음악캠프 현장. 일주일 앞으로 예정된 합동연주회를 앞두고 연세대 음대생 25명과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 70여 명이 세계적인 첼리스트 양성원(50) 교수의 지휘에

그뿐만이 아니다. 올 가을 여수는 클래식 음악제를 통해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난다. 여수상공회의소와 여수시, (재)KBS교향악단 등은 오는 9월1~3일까지 예술마루에서 'KBS교향악단과 함께 하는 제1회 여수음악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클래식 축제가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높이고 예술과 해양을 아우른 관광도시의 구심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여기에는 예술마루에서 공연을 가진 KBS 교향악단과의 남다른 '인연'도 한몫했다. 개관 5년 만에 이뤄낸 예술마루의 효과다.

그도 그럴것이 인구 25만 여명의

## 잘 만든 공연장, 여수를 살린다

맞춰 막바지 연습에 한창이었다. 연세대 음대가 유스오케스트라와 음악캠프를 열게 된 건 지난 2015년 예술마루에서 연주회를 가진 양 교수의 권유가 계기가 됐다. 최고 수준의 무대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는 예술마루의 제안을 받고 흔쾌히 학생들과 함께 여수를 찾은 것이다.

근래 예술마루는 국내 음악인들 사이에 '한번쯤 꼭 서보고 싶은 무대'로 통한다.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도 '예술마루 팬'이다. 지난 2012년 12월 예술마루에서 송년음악회를 개최한 후 뛰어난 시설에 매료돼 이듬해 다시 신년음악회를 개최할 정도다.

예술마루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한 GS칼텍스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1000억원을 들여 건립한 아트센터다. 지난 2012년 개관 이후 5년간 1349회에 달하는 전시와 공연,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기획해 54만 명이 다녀가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여수는 5년 전만 해도 변변한 미술관이나 공연장 하나 없는 문화불모지였다. 수준높은 공연을 관람하려면 광주나 서울로 원정을 가야만 했다.

예술마루의 성공은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적 수준의 클래식 음악제는 고사하고, 뮤지컬이나 클래식 등 개별 장르에 맞는 전용공연장이 없기 때문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이 있긴 하나, 이 역시 다목적 공연장이다. 특히 1991년 개관한 광주문화회관은 광주의 대표 공연장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노후화된 시설과 기획력 부족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 문화계의 숙원인 '클래식 음악제' 창설이 공허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잘 만든 공연장은 도시를 살리고 시민을 행복하게 한다. 예술마루를 품에 안은 여수의 비상이 기대되는 이유다. 언제쯤이면 광주에도 명품 공연장이 들어서게 될런지.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 문화전문 계간지 '문화통plus' 봄호 나왔다

인터넷신문 문화통(대표 지형원)이 발행하는 문화전문 계간지 '문화통plus' 봄호(통권 22호)가 출간됐다.

이번호 '전남의 마을 1박2일' 시리즈 특집에서는 영암 구림마을을 방문했다. 왕인박사·도선국사가 탄생한 2200년 역사를 지닌 마을로, 500년을 이어온 구림 대

동계로 유명하다.

또 전라도문화수캐끼 시리즈 12화째로 '조금새끼의 비밀'을 다뤘다. 목포 온금동(대순구미)을 찾아 '유달산자락 대순구미에 생일이 같은 아이가 많은 까닭은?'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친다.

'통 발굴' 코너에서는 '오센집을 아십니까?'를 주제로, 양수아·배동신·강용운 등 지역 미술인들의 아지트를 회상한다. 소위 '삼바가라스'로 불리던 화가들이 모여 술과 토론을 나누던 공간이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번호 주인공은 권재홍 영광 해룡중·고등학교 설



립자다. 30대 중반 집을 팔아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섰던 이야기를 비롯해 학교 운영이념, 교육 철학 등을 들어봤다.

'이 작가를 주목하라'에서는 미디어아티스트 황정우씨를, '이사람'에서는 '웃음박사' 김영삼 남부대 교수를 만났다.

그밖에 김종 시인의 수필, 정운태·김용관·오명섭·서재경 작가의 작품, 지역 예술계 소식을 실었다. 문의 062-226-10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담양 공예미술관 보임원 레지던스 입주작가 모집

담양 공예미술관 보임원이 공예·디자인 분야 레지던스 프로그램 입주작가를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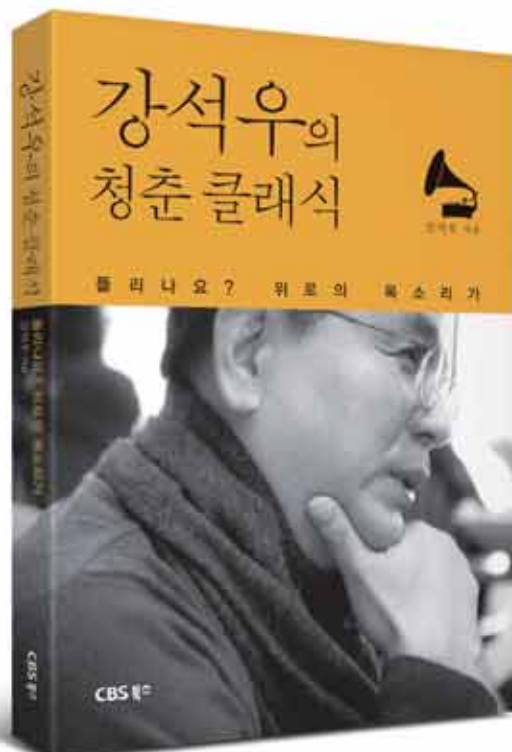
'공예의 가치, 예술가와 만나다'를 주제로 운영되는 올해 레지던스는 지난해에 비해 창작공간을 더욱 늘려 보다 많은 작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또 문화상품 개발, 홍보·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입주작가들의 자생력 갖추기와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쓴다.

지원 자격은 40세 이하 대학 졸업생·대학원생으로 오는 27일까지 미술관 블로그를 통해 이메일로 응모하면 된다. 선정되면 4월부터 11월까지 창작공간 제공, 개인전 지원, 공예 문화 상품개발, 홍보 등의 지원과 매달 소정의 창작활동비를 제공한다. 문의 061-383-647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음악이 있어 아름다운 삶, 살아온 이야기가 있어 아름다운 음악!



### 우리 시대의 클래식 '전도사' 강석우의 첫 에세이! 그가 들려주는 65곡의 주옥 같은 음악과 인생 이야기

강석우는 가슴이 따뜻하고 깊은 친구다. 나는 힘들었던 시절 이 친구의 따뜻한 정을 받고 큰 힘을 얻기도 했다. 비슷한 환경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와서 더욱 공감이 큰 그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이 글들이 되풀이 되풀이 되풀이 해줄길 바란다. \_ 송승환(배우, 공연 제작자)

어려울 수도 있는 클래식을 편안하게 들려주는 그의 솜씨에 내심 감탄했다. 라디오 청취율이 높은 것도 그 덕분일 텐데, 이 책도 그러하다. 휴식과 위로가 필요할 때 이 책은 좋은 친구가 되어 줄 것이다. \_ 리처드 용재 오닐(버클리교수)

## 강석우의 청춘 클래식

강석우 지음 | 46면행판 | 268쪽 | 값 13,000원 CBS 북스

